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4년도 제20호

### 체육시민연대 활동

집행위원장 선임, 집행위원회 개최 등

### 경향신문 오피니언 기고

초등 1·2학년에게 필요한 '체육교과'

이승배 안산화정초등학교 교사

### 위치칼럼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아주 좋은 영향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 21세기 학문의 신대륙을 찾아서 ⑦

공감·상생을 통한 폭력 없는 스포츠세상을 위해...역지사지형 VR 교육콘텐츠

임효진 교수신문 기자

### 젊은층 스포츠생중계 시청 인원 감소세

짧은 영상에 익숙한 Z세대...스포츠 생중계 사업 어쩌나

이소현 이데일리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체육시민연대 활동

## 1. 집행위원장 선임 건

前 **홍덕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2021.01.01 ~ 2024.05.14)

現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2024.05.14 ~ 2026.05.13)

## 2. 집행위원회 개최 건

### • 보고사항

I. 전월 논의 안건 진행 상황 보고

II. 사무국 활동 보고

### • 향후 체육시민연대 활동방향

#### 학생 신체활동 저조 문제에 대한 개선 촉구

(국가교육 체계 內 스포츠 역할 강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후 시민운동으로 확대 등)

#### 승리지상주의 인식 개선 및 체육단체 권한 견제 강화

(체육단체 운영 목적에 대한 인식 환기 활동, 체육단체 사유화 및 독점권한의 견제 등)

#### 집행위원 중심의 업무추진

(각 집행위원 별 전문영역을 고려한 업무분담, 집행위원회의 총괄기능 강화 등)

### • 기타 논의 안건

초등학교 1, 2학년 체육 단독교과 편성 등

### ※ 별첨

I. 재정 사항

II. 회원 현황



이승배 안산화정초등학교 교사

# 초등 1 2학년에게 필요한 '체육교과'

1981년 도입된 통합 교육과정 아래 '즐거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체육, 음악, 미술이 통합·운영됐다. 이후 지난 40여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이 됐다.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부족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됐고 부족한 신체활동은 소아비만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

소아비만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소아비만은 적정 시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조기 발병을 유발한다. 소아비만 중 75~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각종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 10명 중 4명이 비만, 나머지 6명 중 다수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굳이 통계를 찾지 않더라도 지금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심각한 '운동 부족증'을 확인할 수 있다. 1~2학년 아이들은 제대로 뛰지를 못한다.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운동장 한 바퀴를 완주하지 못한다. 한 바퀴를 돌면, 토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 1~2학년 담임 교사들이 체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서다. 교실 밖에서 하는 놀이 혹은 체육수업은 교실 안 활동과 비교할 때 피로도가 훨씬 높다. 40분 동안 체육 혹은 놀이수업 하자고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설령 운동장에 나가더라도 1~2학년들이 체계적인 신체활동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지난 40여년간 초등 1~2학년 아동들의 체육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사라졌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체육계와 학교 현장 등 여러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심각한 소아비만을뿐만 아니라 대근육을 쓰고자 하는 아동들의 운동 욕구, 정상적인 발육·발달, 뇌 자극 및 성장 등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나왔지만, 교육과정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체육교과를 음악이나 미술교과와 통합해 가르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은 교과명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초등 1~2학년부터 체육교과를 여타 교과와 분리해서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체육교과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논리적 타당성을 견지하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육에서도 체육을 음악이나 미술과 분리해 가르치고 있다.

체육교과를 단독 편성한 것은 초등 3·4학년부터다. 왜 초등 1~2학년 체육을 미술, 음악과 통합해 가르쳐야 할까. 교육의 일관성이나 연계성과 체계를 봐도 체육, 음악, 미술을 하나의 교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체육교과를 타 교과와 분리·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공식적으로 심의·의결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교과서 개발 등을 위한 2~3년의 준비 기간이 남았다. 일부 현장의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체육활동 공간 마련 및 개선 등 실제 적용을 위한 현명한 교육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아주 좋은 영향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지난달 초등 1, 2학년 신체 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 교육 과정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35년 만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별도의 체육 과목이 생긴다.

현재 초등 1, 2학년 체육은 5차 교육 과정이 적용된 1989년부터 음악, 미술과 함께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 과목에 포함돼 있기에 학생들은 음악과 미술, 체육을 교사의 분배에 따라 배울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체육이 분리돼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신설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며 저학년의 신체 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체육 교과를 분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변경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교사 쪽에선 체육 과목 분리 및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벌인 설문 조사에선 98%의 교사가 체육 과목 분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추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는 것이다. 이어 발달 단계에 맞는 통합교과 필요성과 비 교육 전문가의 개입 우려가 뒤를 이었다. 체육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를 책임져야 하는 교사의 부담감이 늘고 관련해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이다.

체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지덕체(智德體)는 1900년대 사회적 담론의 중심 주제인 교육론의 핵심적인 세 가지 체계였다. 참된 교육을 위해서는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을 조화롭게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모니터와 TV 화면 앞에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점차 학생들의 체력은 약해지고 비만의 수는 늘어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스포츠의 매력은 계속해서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다. 동네 놀이터부터 대형 경기장까지,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열정, 동지애, 귀중한 인생 교훈을 불러일으킨다. 청소년 스포츠의 확산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지닌 문화적 현상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는 스포츠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다. 좋은 침대보다, 보약보다 더 좋은 자산이다.

청소년들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지속하는 이유와 이점은 너무나 많다. 우선, 스포츠는 나이, 민족, 배경의 장벽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언어를 제공한다. 공을 차거나 농구공을 던지는 등 스포츠는 우정을 쌓고 차이와 차별을 무시하는 공통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포용성은 젊은 운동선수들 사이에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여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풍부하게 한다. 더욱이 스포츠의 신체적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만과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이 만연한 시대에 스포츠는 신체 활동의 중요한 배출구를 제공한다. 스포츠에 참여하면 심혈관 건강과 체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평생 규율과 인내의 습관을 심어줄 수 있다. 땀과 노력을 통해 젊은 운동선수들은 노력의 가치와 한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배운다.

육체적 영역을 넘어 스포츠는 인격 발달을 위한 강력한 훈련장 역할을 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젊은 운동선수들은 역경, 실패, 팀워크의 중요성과 씨름한다.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법, 팀원을 신뢰하는 법,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교훈은 현장이나 법정을 훨씬 뛰어넘어 삶의 도전에 정면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는 탄력 있고 공감하는 개인을 형성한다. 더욱이,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세상에서 스포츠는 문화 교류와 이해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축구를 통해 국가를 하나로 묶는 월드컵이든, 다양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올림픽이든, 스포츠는 국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키워준다.

물론, 스포츠의 확산 현상에 몇 가지 문제가 숨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우리는 사회 경제적 지위나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문화를 육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를 우선시하고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스포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공동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포용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성 평등 촉진, 풀뿌리에서 전문가 수준까지 청렴성과 스포츠맨십 문화 육성이 수반된다. 젊은이들 사이의 스포츠 확산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형성하는 심오한 사회적 힘이다. 젊은 운동선수들은 드리블하고, 스윙하고, 질주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동 능력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탄력성, 팀워크, 공감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흡수하고 있다. 화합과 이해를 갈망하는 세상에서 스포츠는 아마도 더 밝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체육은 중요하다. 체육 활성화를 위해 과목 분리를 요구해 온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와 문체부도 환영 견해를 밝혔다. 학부모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체육마저 사교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것이다. 기초 연구와 교과서 개발 등의 절차가 남아 체육 교과를 분리하기까지 2~3년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시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즐거운 체육 시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 공감 상생을 통한 폭력 없는 스포츠세상을 위해...역지사지형 VR 교육콘텐츠



2024.05.14

전상완 국립목포대 체육학과 교수

지난 2020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고 최속현 선수는 팀 내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처럼 교육계의 크고 작은 비윤리적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막기 위해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센터에는 지난 3년간 전국 학교 운동부의 인권침해 신고가 82건 접수됐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징계나 수사 의뢰가 요청된 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근절되지 않는 체육계 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상완 국립목포대 교수(체육학과)는 VR을 이용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 「공감 & 상생의 스포츠 문화를 위한 스포츠윤리 VR 교육 콘텐츠 개발」이다. 이번 연구에는 역지사지 정신을 바탕으로 체육인문학·공학·문학·연기&연출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했다. 전상완 교수는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체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전문 운동선수들이 겪는 비윤리적 행위 문제에 늘 가슴 아팠고 이런 관심의 시작이 연구를 직접 수행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전 교수는 “성적만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냉혹한 성적 제일주의 문화는 결국 폭력이라는 비윤리적 문제를 양산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 연 1회 1시간 교육, 폭력 근절 어려워

그동안 체육계 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이 없었던 건 아니다. 종목별로 스포츠윤리 교육을 진행하다 2021년부터는 국민체육진흥법 2·3차 개정으로 법정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했다. 하지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인권 교육’ 등은 고작 1년에 1시간을 교육하는 데 그친다. 이런 방법으로 체육계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찾는 데 주력했다. 실제 시나리오에 기반한 VR 교육 콘텐츠 개발이다. 전 교수는 “국외에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 비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다방면으로 시도되는 걸 보고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영국은 아동 관점의 학대·방임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VR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어른의 행동에 변화를 줘 아동과 가족의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호주는 전문 선수의 약물 도핑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적인 차원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다. 연구팀은 “스포츠윤리 교육에 VR을 적용하면 기존 스포츠윤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생동감 있는 간접 체험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선배보다 지도자 폭력 대부분...언어폭력에 상처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연구팀은 현직 운동선수와 지도자,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상위 범주는 전문 스포츠 문화, 경기 중 폭력적 행위, 체벌과 폭력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했고, 하위 범주는 경기 중 폭력 행위, 스포츠에서 폭력 허용 범위 등으로 나눠 조사했다. 연구 결과, 선배보다 지도자의 폭력이 피해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는 생계유지와 생존으로 인해 선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 이유와 행위에 대해 한편으로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공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신체 폭력 경험 못지않게 언어와 정서 폭력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상완 교수는 “실제 피해 사례를 선별해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현실감 있게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며 “기존의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해 스포츠윤리 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역지사지’ 정신으로 공감·상생 시나리오 제작

연구팀은 인터뷰에서 스토리 핵심 요소를 추출해 3건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시나리오에는 하나의 폭력 사례에 각각 피해자·가해자·방관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연구를 활용한 교육은 몰입도를 높이고 상호작용과 학습효과를 키울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스포츠윤리 문화 확립에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팀은 완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VR 콘텐츠를 제작했다. 우선 모션 캡처 카메라로 다수의 연기자를 촬영해 형상과 동작 자료를 수집했다. 안면 표정 추적 기술을 활용해 연기자의 표정을 아바타에 적용하고, 콘텐츠 배역에 사용자 얼굴로 아바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몰입감을 높였다. 여기에 뇌파 장치, 심박수 측정기, 호흡 측정 센서, 동공 추적용 HMD(머리 착용 디스플레이)와 같은 측정 방식을 종합해 전체 콘텐츠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고, 콘텐츠의 어떤 부분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전 교수는 “지금까지 스포츠윤리 교육에 대해 반성적 사고로 분석하고 비판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라며 “현행 스포츠윤리 교육에 대한 고찰이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한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은 체육계에서 경기력 향상이나 건강관리 차원으로 활용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인문사회학 기반에서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541>



# 짧은 영상에 익숙한 Z세대... 스포츠 생중계 사업 어저나

짧은 동영상이나 하이라이트 영상에 익숙한 Z세대 사이에서 스포츠 경기 시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중계권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젊은층에서 생중계로 스포츠를 시청하는 인원이 줄고 있다.

영국의 인터넷 기반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업인 유고브에 따르면 스포츠 생중계 경기를 시청한 연령대를 보면 55세 이상 중장년 층은 75%에 달한 반면, 18~24세 젊은 층은 31%에 불과했다.

젊은 층은 생중계 대신 하이라이트 클립을 시청하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운동선수들과 소통하고, 또 상당수는 비디오 게임을 통해 스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모닝컨설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997년부터 2012년 사이 태어난 Z세대 중 거의 절반이 생중계로 프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스포츠 팬'이라고 답한 비율은 밀레니얼세대는 69%에 달한 반면, Z세대는 53%에 불과했다. 모닝컨설팅은 보고서에서 "스포츠에 대한 Z세대의 전반적인 관심도는 이전 세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우선 스포츠 관람 티켓가와 OTT 구독료 상승 등으로 인해 젊은층의 스포츠 관람 비용이 높아진 것이 꼽힌다. 또 짧은 형식의 콘텐츠를 선호하는 분위기, 기성세대들과 달리 다른 형태의 오락용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라이브 방송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업계는 긴장상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윌블던 테니스 선수권 등 술한 유명 스포츠 비즈니스 자문사인 컨설팅회사 투서클스의 가레스 발치 공동설립자는 "지금 모두가 업계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강세장이라기보다는 약세장에 가깝다"고 말했다.래의 고객층인 Z세대와 접점을 늘리기 위해 젊은 스포츠 팬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올 여름 파리올림픽에선 힙합 문화를 대표하는 춤인 브레이킹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해 세계 정상급 비보이와 비걸들이 경쟁을 앞두고 있다. 서핑이나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에 이어 브레이킹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생중계 스포츠 경기에 관심이 줄어든 젊은층을 공략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선 젊은 스포츠 팬 공략을 위해 NFL이 최근 슈퍼볼을 생중계할 때 만화 캐릭터인 스펀지밥과 패트릭스타를 해설자로 내세웠다. 해당 채널 시청자들은 증강현실(AR)을 활용해 가상의 녹색 슬라임이 엔드존에 뿌려지는 등 재밌는 장면을 담기도 했다.

많은 대회 주최자들은 젊은층에 다가가기 위해 틱톡이나 스냅챗과 같은 SNS에서도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과 소통하고 스포츠의 재미에 대해 알리고 궁극적으로 평생 팬으로 만들기 위해 온라인 게임을 활용하기도 한다.

스포츠마케팅 에이전시 IMG의 바니 프랜시스 글로벌 프로덕션 총괄은 "다양한 나이와 취향에 맞는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가 계속해서 혁신할 것"이라며 "기술 덕분에 프로듀서들은 스포츠 생중계를 다루는 방식에서 더욱 창의력을 발휘해 스포츠를 넘어 문화적 순간이 되는 새로운 시청자 경험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2026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당진시 개최 확정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20\\_0002740470&clD=10501&pID=105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20_0002740470&clD=10501&pID=10500)

청주 복대국민체육센터 개관...수영장·생존풀 갖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0071700064?input=1195m>

체육인 전지훈련 메카로 주목받는 괴산군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730>

전남교육청,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역대 최고 성적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30282?ref=naver>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가정의 달 행사 개최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117168&code=61161111&cp=nv>

대한장애인체육회, 파리 패럴림픽 金5개 목표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520010009766>

청양군, 2024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7년 만에 화합의 장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99875.htm>

전북 체육의 미래 꿈나무 "승전보 올린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52010583187117>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광주중앙초 찾아간다

<https://www.news1.kr/articles/5419593>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